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 속 위로의 존재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석수연

일상 속 위로의 존재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수연


인 준 서

석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노 신 경 

심 사 위 원 유 근 택 

심 사 위 원 이 만 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일상 속에서 마주한 각각의 대상에게 느꼈던 위로에 관한 표현 연구를 토대로 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저마다 안정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로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으로 해당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일상에서 위로가 되는 대상을 발견하며 하나의 개인은 물론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여러 존재를 통한 표현연구를 함으로써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으로 나타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안을 느꼈으면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현장으로 나가 드로잉을 하고자 하였으며 본인과 닿아있는 주변의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심도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 2019년에 시작되어 본 논문을 작성하는 2021년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겪으며 연구자는 이전부터 해오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과 개인의 닿아있음에서 오는 온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안은 물론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멈춤 없는 자연의 존재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인체 표현의 단순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계절감을 담은 색채로 일상 속 위로의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연구자 본인과 가까이 닿아있는 주변의 자연과 함께 행위가 작품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 형성 배경	4
2. 작품 설명	12
1) 인체 표현의 단순화	12
2) 색채로 나타낸 일상 속 위로의 존재	21
III. 결론	2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이내 곧 (Wiedersehen), 91.0×91.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5
- 【작품 2】 쉽; breathing, 112.2×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6
- 【작품 3】 잔디 끌고 가기, 90.7×130.3cm, 장지에 채색, 2017 …… 12
- 【작품 4】 안 (the inside·安), 72.7×60.6cm, 무표백 장지에 먹, 2019 …… 13
- 【작품 5】 안에서 (self 1.0), 72.7×60.6cm, 무표백 장지에 먹, 2019 …… 13
- 【작품 6】 어느 날의 안에서 (spend time), 150.0×210.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9 …… 14
- 【작품 7】 닳는 존재 (Don't worry), 150.0×210.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9 15
- 【작품 8】 인물 단순화 과정 시리즈 1, 2019 …… 16
- 【작품 9】 우리의 여름을 보내며, 96.0×63.0cm, 천에 아크릴릭, 2019 …… 17
- 【작품 10】 여름을 보낸 후에는, 42.0×41.0cm, 천에 아크릴릭, 2019 …… 18
- 【작품 11】 인물 단순화 과정 시리즈 2, 2020 …… 19
- 【작품 12】 오르다 보면, 32.0×24.0cm, 수채화 용지에 과슈 및 젯소, 2020 … 20
- 【작품 13】 이유 없이, 24.0×16.0cm, 수채화 용지에 과슈 및 젯소, 2020 · 20
- 【작품 14】 아직 마르지 않은 W (detail cut), 152.5×214.0cm, 무표백 장지에
채색, 2021 …… 21
- 【작품 15】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 전시 전경 1, 2021 …… 22
- 【작품 16】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 전시 전경 2, 2021 …… 23

도판 목차

(도판 1) 인생 (La Vie), 196.5×128.5cm, 캔버스에 유화, 1903	8
(도판 2) 삶의 기쁨 (Le bonheur de vivre), 176.5×240.7cm, 캔버스에 유화, 1906	10

I. 서 론

사람은 저마다 승화되지 않은 것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아직 승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승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도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역시 그리함을 이유로 2017년도 상반기부터 꾸준히 위로의 공간을 상상의 영토로 그려 심리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당과 잔디라는 소재를 처음 화면으로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추상적이던 공간표현에 구체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 2017년 겨울에 들어 오래도록 의지해오던 존재의 부재로 인하여, 그리고 그 존재가 남긴 유서를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존재, 개인 하나에 집중하여 하나의 개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일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인간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는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그 고찰은 등근 듯하면서 다소 모호한 형태의 마음 들 곳으로 그려지다 점점 구상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계절이 지나 2018년에 들어서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가 그림을 그렸던 이 시기에는 대상을 관찰하며 그리는 과정에서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필과 건식재료로 뒤엎킨 마른 풀을 꼼꼼하게 그려 넣은 화면이 연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낀 연구자는 우선 걸어보자는 생각에 집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올려다본 하늘은 한없이 넓을뿐더러 본인 스스로 위안을 얻기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멀다는 현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안에서 연구자는 멀게만 느껴지는 광활한 대자연의 풍경보다 지금 본인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일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으며 그 존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당과 잔디에서 마른 풀로 이어져 오던 표현연구는 2018년을 지나며 풀어져 2019년에 인체 표현의 단순화 과정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일상 속 소재와 함께 인물이 등장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2021년에 발표했던 석사학위 청구전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덧붙여 전시 제목이었던 ‘아직 마르지 않은’은 2019년에서 2020년이 되는 겨울에 시작된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그동안의 봄과 사뭇 달랐던 2020년의 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만의 조형 언어로써 구체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태어나 처음 겪는 가장 큰 바이러스였던 만큼 연구자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며 바깥세상은 모든 게 정지된 흑백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바라본 풍경은 전부 멈춰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공포감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새싹은 계속해서 돋아나고 있었으며 봉오리로만 있던 꽃은 피어나고 있었다. 그러한 바깥의 풍경에 한 번 더 위로를 받은 연구자는 2020년 봄을 시작으로 작품을 그려내는 당시의 계절감을 담은 색채 이미지를 화면에 녹이며 위로의 존재가 가진 멈춤 없는 움직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본론에서 작품 형성 배경에 관해 설명하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새로이 맞이하게 되는 전환점을 통해 일상 속에서 위로가 되는 대상에 관한 탐구를 시작으로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의 청색시대와 프랑스 출신의 야수주의의 창시자이자 색채 화가인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를 주로 하여

더는 개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일상에서 위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하여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어지는 작품 설명에서는 인체 표현의 단순화와 함께 색채로 보여지는 일상 속 위로의 존재를 분석해보았다. 2017년도에 부가적인 요소로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 2018년을 지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되면서 인체의 단순성에 관한 표현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개인 주변에 가까이 닿아있는 자연이 그 당시 현장에서 연구자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에 집중하여 포착해나가게 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앞으로 작품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서술하고, 진행 중인 자연의 움직임 연구는 물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관한 범위의 확장을 계속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걷다 보면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연구자는 그것을 때로는 작은 소재로써, 때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무언가로, 때로는 색면과 색선으로 화면에 그려 넣는다. 어떻게 보면 화면에 나열된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나 모두가 빠르게 지나쳐서일 수도 있고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상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길을 걷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보게 되는 것들, 혹은 멍하니 오랜 시간 한 공간에 머무르며 시간을 들여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 연구자는 주로 그때의 찰나를 화면에 담는다. 자칫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연구자에게 일상의 소재란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치는 풍경이 아닌 것이 아닌 위로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2017년도부터 꾸준히 위로의 대상을 심리적·상징적으로 표현해오던 연구자는 승화되지 않는 것은 승화되지 않은 대로 보듬고 일상에서 위로가 되어 주는 대상을 찾아 나서기를 결심하였다. 연구자의 연구는 그렇게 현장에서의 드로잉을 시작으로 다소 모호한 형상에서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다 이내 복잡한 화면을 띄게 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직접 그리고자 하는 소재가 있을 때마다 더욱 능동적으로 현장에 나가 직접 보고 그리며 머무는 장소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눈앞의 대상을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 2018년부터는 더욱 세밀한 표현연구를 시작하였다.



【작품 1】 이내 곧 (Wiedersehen), 91.0×91.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그중 【작품 1】은 연구자가 전시를 보러 안국동을 돌아다니다 마주했던 여러 소재를 복잡하게 얽혀진 마른 풀 사이사이에 함께 배치해 넣음으로써 하나의 덩어리 혹은 하나의 또 다른 작은 세상처럼 보이게끔 하였다. 해당 작품의 배경을 만들 때는 연한 먹을 계속해서 분사하여 쌓아 배경이 갑갑하지 않도록 표현하였으며 포인트 색감 외로는 최대한 절제하여 완성 후 연구자의 눈에 들어왔던 일상의 소재로만 구성한 작품 속 공간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들게 해주었으며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17년도부터 작품에 등장했던 풀이라는 소재는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마른 풀로 화면에 그려졌다. 당시 연구자의 심리를 대면이라도 하듯 계절상 봄이 되었음에도 건조한 풀이 마르다 못해 서로 엉켜진 상태로 담기다 2018년 하반기를 지나며 【작품 2】에서 새로이 전환을 맞이하였다.



【작품 2】 Hyun; breathing, 112.2×145.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 2】를 보면 현장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뭉쳐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거나 한 듯 한결 가벼워진 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간혀있었다고 볼 수 있던 세상에서 점차 바깥 세상으로 흐트러지는 화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작품은 연구자가 앞으로의 새로운 화면 구성에 있어 어떻게 해나갈지와 오롯이 하나의 개인에 집중하게 하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연구자는 【작품 1】 , 【작품 2】 이후에도 꾸준히 현장으로 나가 과학자도 덜하지도 않은 연구자만의 조형 언어를 찾아가는 표현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변의 풀만이 아닌 본인과 닿아있는 여러 대상을 둘러보게 됨으로써 인물과 인물이, 인물과 자연이, 인물과 그 이상의 모든 대상이 만나는 관계의 미학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계기로 연구자는 작품에 개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게 되었으며 그 인물이 화면 안에서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현재 본인의 상태에 관해 인지하고 지금의 본인이 어떠한지를 인정하게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의 개인을 둘러싼, 그리고 그 개인을 지탱해주는 주변의 수많은 존재에 관한 고찰을 시작했다.

이후 연구자는 2019년도부터 인물과 인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인 하나의 내면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비슷한 결의 작품이 연작으로 이어져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 1881~1973.)는 파리의 비참한 생활상에 주목하여 거지와 가난한 가족 등을 그렸다. 청색이 주조를 이루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를 피카소의 ‘청색시대(靑色時代)’라고 부른다. 이때 제작된 작품들은 하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 참상과 고독감이 두드러졌다. 또한, 파리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절친한 친구였던 카를로스 카사헤마스가 비극적인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충격은 더했다.¹⁾고 한다.

1)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톨루즈, 몽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블로 피카소 [Pablo Ruiz y Picasso] (두산백과)



(도판 1) 인생 (La Vie), 196.5×128.5cm,
캔버스에 유화, 1903

피카소의 절친한 친구 카사헤마스의 죽음과 함께 정신적인 방황의 시대를 표현한 청색시대(1901~1904) 작품연구는 청색의 색채를 통하여 색채치료(color therapy)의 효과로 작가의 정서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었으며, 청색시대와 장밋빛 시대에 나타난 과도기적인 회색과 노랑의 색채 표현은 고통과 좌절에서 희망을 모습을 예고하였다. 피카소가 사랑의 체험을 통하여 여성에 이끌려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장밋빛 시대(1904~1906)의 분홍의 사용은 질병이 치료되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싹트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²⁾

피카소 작품에서 나타난 청색의 심리를 보면 1901년 파리 진출 이후 궁핍은 명에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러 있었다. 화가가 궁핍을 색채로 표현할 때 밝고 따뜻한 색보다 푸른색이 그 정서를 대변해준다고 본 피카소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화면에다가 푸른색으로 체화했다.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갈등과 억압을 풀어냈으며 색채를 통하여 우울, 슬픔, 고통, 질병, 절망을 나타냈고 색을 풀어냄으로써 심리적인 해소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³⁾

2) 오현숙, 「피카소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채 심리와 색채 치료적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3권 제2호, 2006, p.405
3) 오현숙, 위의 책, p.425

피카소의 경우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젊은 시기에는 청색에 얽매
이고 있었지만, 사랑을 알고 조금씩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화풍으로 변해
감에 따라 명도도 밝은 색조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⁴⁾는데 이를 알고
보면 연구자의 연구를 이해하기에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본다.

연구자는 수묵이 주된 작품을 시작으로 담묵으로 담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칠게 진한 먹으로만 그려내며 개인의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본인
의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 주변의 자연으로까지 시선을 넓게 확장해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색감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연구자의 가장 최근 작품을
보면 계절감을 담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 밖의 손이 닿는 존재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주변의 타자, 즉
본인 주변의 인간에게도 시선을 돌리고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연구자의 작품에 인물이 자연스럽게 출현하여 인물과 인물의 관계의 닿아있
음에서 오는 위로가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함께 했던 기억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음과 인물 사이의 관계성
은 물론 그 관계성에서 오는 온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진 상대와의 닿아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위안을 얻고 이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인물과 인물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나아가 그 이상의 존재와의
닿아있음에 관해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앞으로의 작품이 기존
의 연구와 같은 연구 범위로 묶여 보이지 않도록 2019년 하반기부터는 화면
속 인물이 온전하게 인물로만 보이지 않도록 인체 표현에 있어 단순화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4) 오현숙, 위의 책, p.406

이어 프랑스 출신의 야수 주의의 창시자이자 색채 화가인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⁵⁾는 미술가는 자연을 소유해야 한다.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연의 리듬과 함께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 훗날 그 미술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을 것⁶⁾이라고 하였다.



(도판 2) 삶의 기쁨 (Le bonheur de vivre), 176.5×240.7cm,
캔버스에 유화, 1906

그러한 그의 정신을 위한 안락의자라고도 불리는 (도판 2)를 보면 자연과 사람의 경계가 모호한 선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으며 연구자 본인과 맞닿아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프랑스의 색채 화가로 뛰어난 데생 능력의 소유자. 초반에 신인상주의, 1905년부터는 포비즘의 경향을 보였다. 여러 공간표현과 장식적 요소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1932년 이후 평면화와 단순화를 시도했다. 로제르 드 방스 성당의 건축 설계, 벽화 등을 제작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미술대사전(인명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6) 가비노 김,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로사리오 경당의 탄생과 한 예술가의 삶)』, 미진사, 2019,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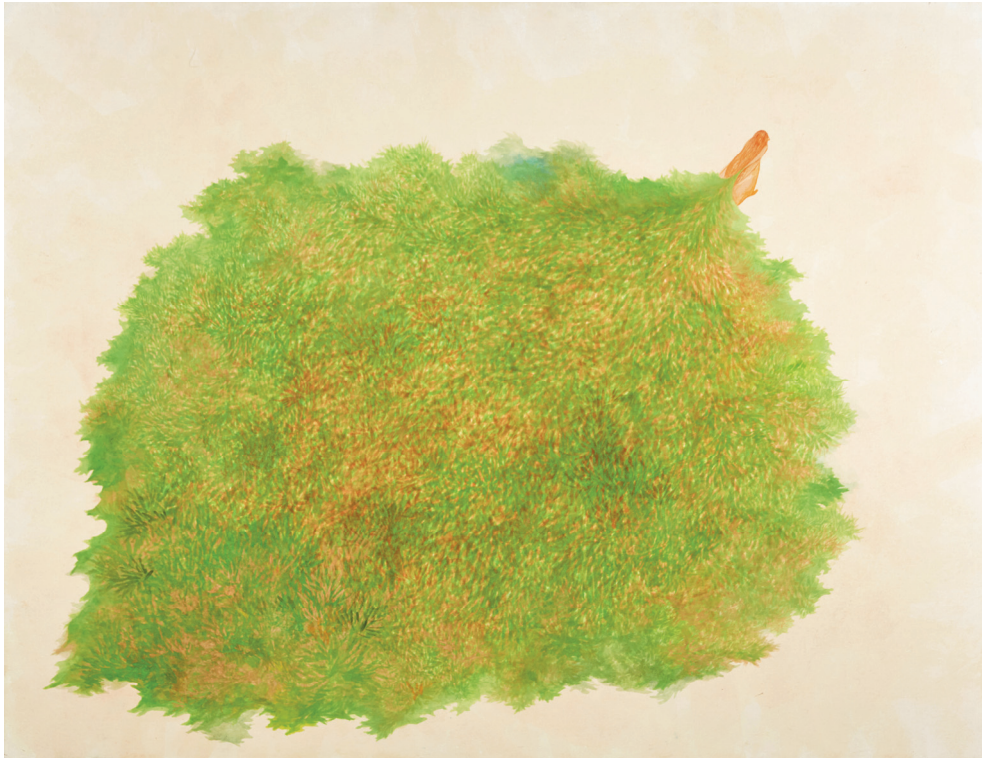
연구자는 인체 표현의 단순화 과정을 거친 인물과 걷다 잠깐이라도 멈춰 보게 되거나 시간을 들여 바라보게 되는 대상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본인만의 작품을 해나갈 것인지와 위로의 존재가 가진 움직임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인 표현법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에 연구자는 피카소가 남긴 말대로 연구자 본인이 해오던 기존의 작품 양식에 자연의 리듬을 더해 현장 드로잉을 하면서 작품에 계절감을 녹이게 되었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화면에 쓰이는 색채가 변화하게 되었다.

작품을 통해 자연의 리듬과 함께 연구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표현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할지가 주된 고민이었던 연구자였기에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마주한 자연에서 느꼈던 리듬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화면 안에 저마다의 행위를 취하는 인물을 색선으로 그림으로써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게 담아내는 지점으로 점차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2. 작품 설명

1) 인체 표현의 단순화



【작품 3】 잔디 끌고 가기, 90.7×130.3cm, 장지에 채색, 2017

연구자의 2017년도 작품인 【작품 3】은 잔디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처음으로 화면에 인물을 함께 구성했던 작품이었다. 이때 잔디를 끄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2019년에는 주가 되어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더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닌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물을 계속해서 그리는 과정에서 인체를 단순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다.

연구자의 작품 속 인물은 【작품 4】와 【작품 5】처럼 이목구비가 없어 바로 표정을 읽어낼 수는 없지만 팔과 다리, 손과 발을 가진 인물의 형상은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떠한 감정일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작품 4】 안 (the inside·安),
72.7×60.6cm, 무표백 장지에 먹, 2019



【작품 5】 안에서 (self 1.0),
72.7×60.6cm, 무표백 장지에 먹, 2019

또한, 두 작품 모두 무표백 장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지와 달리 표백이 되지 않은 장지 자체만의 포근한 색감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이번 작품연구를 시작으로 후의 연구에서도 무표백 장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아주 연한 톤으로 시작하여 담백하게 수묵으로만 작업하였다는 특징인데 먹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나오는 밝고 어두운, 그러면서도 촉촉한 맛을 작품 안에 풍부하게 담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담하게 형상화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인 안의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답하며 지금의 본인이 어떠한지 알아가고 확인하는 과정을 블랙 독 증후군⁷⁾으로 은유하여 나타내는 검은 개로 표현하여 【작품 5】에서는 그것을 인지했다면 【작품 6】과 【작품 7】로 이어지게 하여 본인의 상태를 마주하고 이내 받아들이는 상황을 차례로 화면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작품 6】 어느 날의 안에서 (spend time), 150.0×210.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9

7) 이는 검은 개를 터부시해온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영어 사전에도 블랙 독(black dog)이라는 단어는 '검은 개'는 물론 '우울증', '낙담'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풀이돼 있다. 특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경우 "나는 평생 블랙 독(검은 개)과 살았다."라며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증을 검은 개에 비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블랙 독 증후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연구소)

포인트로 붉은색이 들어가나 여전히 수묵이 위주인 【작품 6】에서는 계속해서 겹치게 그려낸 인물이 잔상으로 남아 처한 감정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호분과 먹을 흘리는 기법과 함께 짙은 농도의 먹을 건필로 그려 화면을 보다 실험적이며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7】 닳는 존재 (Don't worry), 150.0×210.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9

이어지는 【작품 7】에서는 감정을 교류하는 상대와의 닿아있음에서 오는 온기를 통해 위안을 주고받는 인물끼리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서로서로 닿아 있게 표현했다. 작품 속 인물은 저마다 피부로 느껴지는 따스한 위로를 통해 검은 개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마주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아래에 두고 그동안의 상황을 보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간 인물로 표현하며 이전과 비교하면 작품에 더 많은 색감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6】 과 【작품 7】 같은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는 인물이 스스로 다독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나아가 본인의 주변을 둘러보는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함을 계기로 본인과 닿아있던 다른 인물의 온기를 통해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을 나타내는 작품 속 인물을 【작품 8】 과 같은 단순화 과정을 거치며 머리와 팔, 다리의 형상만을 남기며 그리다 2019년의 끝자락에는 인체를 표현함에 있어 색면과 선으로만 존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말하는 위로의 존재는 인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은 대상이라면 되기에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자 인물이 인물로만 보이지 않도록 단순화 과정을 거치고자 했다.



【작품 8】 인물 단순화 과정 시리즈 1,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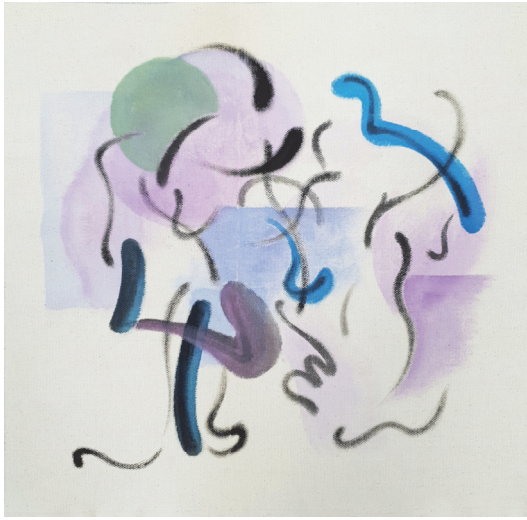
그러면서 인물 뒤에서 배경처럼 존재하던 색면은 인물이 단순성을 가지게 되면서 더는 인물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로서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서 인물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인체의 몇몇 요소만을 취해 선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작품 9】 와 【작품 10】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색면은 더는 배경적 요소가 아니라 선으로 해부되어 이루어진 인물과 인물의 모습과 하나 되어 구성되었으며 화면 안 색감끼리의 조화를 고려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평면 미술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선은 그림의 주제가 취한 과거, 현재, 미래의 동작을 암시한다. 동작을 나타내는 드로잉 선의 특징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건 자유롭게, 재빨리, 아무런 제약 없이 긁는 것이다. 그 선들은 작품에 어울리기만 한다면 주제 특유의 분위기를 포착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러한 생동감을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 해당한다.⁸⁾



【작품 9】 우리의 여름을 보내며, 96.0×63.0cm,
천에 아크릴릭, 2019

8) Ott G.Ocvik, 박재은 옮김,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1999, p.93



【작품 10】 여름을 보낸 후에는,
42.0×41.0cm, 천에 아크릴릭, 2019

연구자의 【작품 9】, 【작품 10】은 색면의 역할 변화는 물론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번 더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정적으로 보였던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인물이 한눈에 인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물임을 알고 보면 춤추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울동감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인물을 드로잉한 에스키스에서 특징으로 살리고 싶은 부분만 살려 선으로 표현하고 색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며 천에 표현하였는데 개별의 선은 구성과 표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주요한 선도 있고 부수적인 선도 있지만, 미술작품에서는 모두 중요하다. 선은 모두 저마다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형식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⁹⁾고 보며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다.

또한, 선은 인간의 감정 표현, 행위의 묘사, 객관적인 정보의 소통 등 그 어떤 기능을 강조하든지 미술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성요소임이 틀림없다¹⁰⁾고 한다. 이러한 선을 주로 한 인체 표현의 단순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물과 인물만이 아닌 주변의 소재, 나아가 자연의 요소를 작품에 큰 구분 없이 함께 구성하였다.

9) Ott G.Ocvik, 위의 책, p.84

10) Ott G.Ocvik, 위의 책, p.93

【작품 11】을 보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선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연구자의 작품에서 주를 이루게 된 인물이라는 소재로 이전의 작품에서 화면의 중심에 하나의 커다란 형태로 자리 잡고 있던 인물이 2019년 가을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상의 소재와 섞여 다양한 행동을 취하며 간결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색깔이 있는 선을 이용하면 더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색채는 선의 특성을 또 다르게 강조한다.¹¹⁾ 이전 연구에서는 색면에 흑백 선으로만 인물을 표현했다면 【작품 11】부터는 색선으로 그려내었다.



【작품 11】 인물 단순화 과정 시리즈 2, 2020

이와 이어져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rapport¹²⁾적인 당아있음, 즉, 위로는 물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그 밖의 모든 존재와의 당아있음이었던 만큼 연구자는 2020년에 이어지는 【작품 12】와 【작품 13】처럼 더 이상 인물이 인물로만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략화를 시도하였다.

11) Ott G.Ocvik, 위의 책, p.89

12)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화로운 일치감, 즉 공감적이며 상호 반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메즈머(Mesmer, 1965)는 18세기의 물리학에서 이 말을 따왔다. 그는 자신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이 에너지를 “동물적 자력(磁力)”으로 이해했고, 이것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이 에너지를 친밀 관계라고 불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친밀 관계 [RAPPORT] (정신분석용어 사전, 2002. 8. 10, 미국정신분석학회, 이재훈)

인간의 감정 표현과 행위의 묘사라는 요소가 담긴 【작품 12】와 【작품 13】은 인물의 여러 행위와 함께 인물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주변의 소재를 색선으로 그린 뒤 마지막으로 젯소를 화면 전체에 발라 차분하게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내며 요소로부터 혹은 요소에 의해 그 속에서 인물이 취하게 되는 각각의 행위적인 특징을 잡아 화면에 함께 구성했다.



【작품 12】 오르다 보면, 32.0×24.0cm,
수채화 용지에 과슈 및 젯소, 2020



【작품 13】 이유 없이, 24.0×16.0cm,
수채화 용지에 과슈 및 젯소, 2020

2) 색채로 나타낸 일상 속 위로의 존재

연구자의 2021년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을 보면 걷다 잠깐이라도 멈춰 보게 되거나 멍하니 오랜 시간을 들여 바라본 소재가 모여 자연과 인물이 구분 없이 하나의 화면에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14】 아직 마르지 않은 W (detail cut),
152.5×214.0cm, 무표백 장지에 채색, 2021

연구자의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 일상 속에서 마주친 자연과 다양한 행위의 여러 인물이 함께 섞여 있다. 단순화된 인체 표현과 주변 풍경 속 소재가 경계 없이 어우러진 화면은 흔히 보고 생각하는 크기보다 때때로 크게 그려지기도 하고 작게 그려지기도 하여 가령 인물이라는 선적인 요소보다 땅 위로 올라온 작은 풀이 더 크게 그려지기도 하기에 【작품 14】 처럼 일상적인 것이 때로는 다르게 보이거나 다소 낯설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연구자는 5월에 진행된 석사학위청구전시를 준비하면서 봄이라는 계절만의 색을 자연스럽게 연구자의 화면에 담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계절감을 색선과 색채 이미지로 나타내어 부드럽게 내리쬐었던 봄날의 햇빛처럼 작품에 쓰인 색채 역시도 봄과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에 대해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유쾌한 리듬과 조화로운 색은 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¹³⁾



【작품 15】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 전시 전경 1, 2021

13) Ott G.Ocvik, 위의 책, p.149



【작품 16】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 전시 전경 2, 2021

밝고 화사한 색은 기분을 좋고 들뜨게 해준다. 따뜻한 색은 일반적으로 원기를 북돋¹⁴⁾는다고 한다. 이는 색채의 선이 가볍게 그려지며 【작품 15】와 【작품 16】처럼 봄이라는 계절만의 싱그러움을 담아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하고 경쾌한 선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되레 부담스럽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편히 기대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였음과 이어져 설명된다.

14) Ott G.Ocvik, 위의 책, p.167

Ⅲ. 결 론

본 논문은 일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위로의 존재에 관한 표현연구를 주제로 화면 속 인물을 통해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에 더해 일상에서 확장할 수 있는 위로 가능 범주를 넓혀감으로써 작품으로 표현하는 본인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저마다의 개인이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위안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함을 서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일상을 보내다 유독 더 눈에 들어오는 소재가 있을 때 시간을 들여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오래도록 바라보고는 한다. 같은 장소를 바라보더라도 저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연구자의 시선을 끄는 요소는 주로 연구자와 가깝게 닿아있는 존재로 나, 너, 우리라는 인물과 그들 안에서의 교류를 통해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주변의 가까운 자연적 소재라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자의 초기 연구는 하나의 개인과 그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으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개인은 단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하루하루 개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주위의 수많은 존재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연구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과 살아있는 자연의 멈춤 없는 움직임을 통해 위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표현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하며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인물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가까이 닿아있는 자연의 요소와 같이 어우러지게 되고 함께 풀어나가게 됨과 동시에 배경적 요소로만 쓰인 주변의 소재가 작품의 중심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화면 안에서 함께 섞이게 되었다.

이는 단순성을 지닌 인체 표현과 함께 계절감을 색채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위로의 존재에 관한 탐구를 하고자 했던 연구자가 이번 연구를 통해 갖춰나가고자 했던 주제 의식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석사학위청구전시 ‘아직 마르지 않은’을 준비하며 개인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주변 자연의 지속성에 관해서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포로 물들었던 바이러스(COVID-19)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기 속에서 수많은 염려에도 굴하지 않고 자연은 변함없이 멈춤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앞으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위안을 주었던 자연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개인의 내면세계와 인물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물론 나아가 가까운 자연에서 받을 수 있는 위안과 위로의 지점까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세계관과도 같은 주제 의식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개인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끼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시간과 공간, 나아가 사회와 문화, 공동체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주변 환경에 따라 혹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지점까지 연구자는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 연구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어쩌면 이미 연구자가 현장에서의 관찰을 위해 머무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 앞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이어지며 머무는 그곳 자체가 이미 위로를 받는 공간 자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연구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와 그 범주의 교류 안에서 일어나는 위로와 위안에 주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비노 김,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로사리오 경당의 탄생과 한 예술가의 삶)』, 미진사, 2019
- 김원일, 『발견자 피카소』, 동방미디어, 2002
- 가오싱젠, 박주은 엮음, 『창작에 대하여 : 가오싱젠의 미학과 예술론』, 들베개, 2013
- 게리 반 하스, 김유미 옮김, 『피카소의 색』, 시드페이퍼, 2013
- 그자비에 지라르, 이희재 엮음, 『마티스 : 원색의 마술사』, 시공사, 1996
- 로런스 고윙, 이영주 옮김, 『마티스 : 아름다운 색의 마술사』, 시공사, 2012
- 바실리 칸딘스키, 차봉희 옮김, 『점·선·면 :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1983
- 하워드 선, 도로시 선, 나선숙 엮음,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예경북스, 2013
- Ott G.Ocviik, 광재은 옮김,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1999

학술저널

- 오현숙, 「피카소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채 심리와 색채 치료적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3권 제2호, 2006

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n the Existence of Consolation in Everyday Life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Seok, Su yeon

Dept. of Oriental Pain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 basis for expression research on the consolation, based on the works from 2017 to 2021, that the researcher(I) felt for each object I encountered in my daily life.

In everyday life, the object that can give stability to each person may be different. Even if that's the case, I continue the study with the topic that comfort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live day by day.

I find comforting objects in everyday life and conducts expression research through not only one individual but also various beings surrounding the individual. It is hoped that the viewer will feel comforted by what I want to convey through the works. Therefore, I try my best to draw things in an outdoor, so that I could see, feel, and have in-depth time in the nature around my contacts.

I has had an opportunity to further develop research that has been done since 2019 while going through the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Of course, there is a comfort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warmth that comes from individual contact. Also, through this process, I learned that I could receive comfort from the unstoppable existence of nature.

Furthermore, through this study, I conducted a study on the simplification of human body expression and tried to show the existence of comfort in daily life with colors expressing the sense of seasons. In this way, I studied so that the 'act' could harmonize the nature of the researcher myself with the surrounding nature in the artwork.